

CCTV 재설치 기피 폐쇄성 고수 관제사 인력 확충도 여전히 미흡

세월호 이후 진도VTS 얼마나 달라졌나-해경 점검결과 보니

관제사 국제기준 미달...교육 안받은 직원 발령 적발 합동훈련 매달 실시·교신실적 급증 등은 다소 개선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62일이 지났다.

25일 현재 사망자는 294명, 실종자는 10명. 사고 당시 세월호 사고를 가장 먼저 알고 대처했어야 할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골든 타임' 18분(당일 오전 8시48분~9시6분)을 놓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일본일초의 충격을 다루는 상황에서 진도 VTS 소속 해경들이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인명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후 각계각층에선 VTS의 부실 관제를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근무체계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진도 VTS는 사고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신 못 차린 해경=해양경찰청이 지난 5일 공개한 연안 VTS 현장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진도 VTS에 설치된 CCTV는 사고 이후 철거된 뒤 아직까지 재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 VTS는 지난 6월 5일 점검의 압수 수색에 대비, 근무 태만 등을 감추기 위해 CCTV를 자진 철거한 뒤 기록 일부를 고의로 삭제했었다.

당시 근무 중 자리를 비우고 옆드려 잠을 자거나 골프채를 들고 퍼팅 연습을 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근무자 13명 중 5명이 구속되고 다른

관제사 8명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커녕, 폐쇄성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해경은 "해양항만청 관할 VTS 15곳 중 CCTV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고 CCTV 설치 이유가 레이더 등 고가 장비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만큼 재설치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했다. 또다시 '고양이에게 생선 말긴 팔'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부실 관제를 막기 위한 인력 충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기존 인력 16명에서 20명으로 4명을 증원한 게 전부다.

국제기준 대비 61%에 불과, 맹골수도 등 협수로로 오가는 수많은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제를 위해서는 관제사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1개 관제석당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9.41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도 VTS의 경우 28.23명이 필요해 8.23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업무가 늘어난데다, 여론의 감시마저 집중되면서 기피부서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해경은 또 지난해 2월 5일 관제사 자격 인증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 4명을 진도 VTS에 발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내부 규정상 VTS로 발

령한 직원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언어학·교통관리학·관제설비학 등 4~6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발령 이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VTS 교육을 받는 동안 인력 부재로 부실 관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다.

해경은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감안, '선교육 후 발령'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다.

◇"진짜 바꿨으면..."=해경은 사고 직후 분기마다 한 차례씩 해오던 합동훈련을 매월 한 차례로 늘렸다. 진도 VTS는 화재·재구조·수색·침몰 등 다양한 해상사고에 대비, 시나리오를 짰 뒤 매월 한 차례씩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설치된 선박의 추적·감시 등을 위한 레이더도 2016년에 바꿀 계획이다.

업무 인수인계 등 근무체계도 개선했다. 직원들은 근무 시작 15분 전에 출근한 뒤 VTS 센터장의 감독 하에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 업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다음 근무조와 함께 15분 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VTS 외부에 별도로 마련된 센터장실은 VTS 근무자 안으로 옮겼다. VTS 전 직원들이 적극적인 관제에 나서면서 교신실적도 급증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평균 교신실적은 7125회. 이는 이전 보다 두 배 높은 수치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 주변이 협수로인 맹골수로인데, 주변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우회통행 방송 등 적극적인 관제를 하다보니 교신 실적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olee@

허재호 전 대구그룹 회장 미납 벌금 완납

“서울국제청 탈세 혐의 이해 안돼...수사 과정서 밝혀질 것”

허재호 전 대구그룹 회장이 벌금을 완납했다.

광주지검은 25일 허 전 회장이 남은 벌금 22억80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중 노역(일당 5억여원)으로

30억원을 탕감받고 지난 4월 3일 50억원을 시작으로, 수십억원씩 분납하는 방법으로 전액 납부했다.

광주지검은 또 서울지방국제청이 6억 원대 탈세 혐의로 허 전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허 전 회장 측은 이와관련, “허 전

회장이 차명으로 있던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을 보지 않았고 제 3자에게 이익이 발생했는데 허 전 회장에게 과세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



취업·창업박람회 복직

2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하는 기쁨! 희망을 잡(Job)’ 취업·창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컨설팅을 받고 있다. 북구 주최로 열린 이날 취업·창업박람회 19개 업체가 참가했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상품권 현금화’ 박광태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 감형

범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5일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는 현행법상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범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합

계 판단할 경우에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비서실장 2명에게도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전 광주시 의원 담당 직원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언론인과 골프비용으로 쓴 것은 무죄, 박 전 시장의 생활비로 쓴 데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추후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범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여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일부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시 재정에 손실을 안기고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욱기자 dok2000@

박삼구 회장 비자금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삼구(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 간에 납품 단가를 부풀려 거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가 입증돼 확인하려는 초기 단계”라며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박 회장은 2009년 주력 계열사였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의 기업어음(CP)을 4200억원여치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로 동생인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고소 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연협뉴스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건물

-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900만 주안직접 운영시 1,800만 수익발생
매가 13억 (보 1억 5000만)
-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상가건물 영신중고교, 대덕 APT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2칸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보증금 3천 월 200만원 용 1억) 매가 2억8천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다가 5분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용 1억8천)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매가 3억1
-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 북구 옹동동 8층 건물 1층 상가 58개 삼성전자 앞 (보증금 2억, 용 15억)
오피스텔 (월세 3000만 수익) 매가 35억

(주)대신 010-6670-98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 · 실용 · 설계 · 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린/시/실
· 광주 북구 양산동 (토지 774㎡, 건 11031㎡) / 감정가 19억1천 / 최저가 11억3천 (신건투자적합)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780.2㎡, 건 1992.57㎡) / 감정가 24억7 / 최저가 13억8천 (유철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오치동 (토지 378.9㎡, 건 659.25㎡) /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유철3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 1094㎡, 건 4489.1㎡) / 감정가 41억 / 최저가 18억 (유철7회)투자적합
근/린/주/택
· 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 197㎡, 건 362㎡)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유철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임동 (토지 126㎡, 건 178.61㎡)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9천2백 (유철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유동 (토지 229.7㎡, 건 606.69㎡) / 감정가 13억8천 / 최저가 2억1천 (유철2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유림동 (토지 89㎡, 건 72.74㎡) / 감정가 7천2백 / 최저가 4천 (유철3회)투자적합
숙/박/시/실
· 광주 서구 광현동 (토지 235㎡, 건 980.38㎡)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4억3천 (유철1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영동 (토지 176.9㎡, 건 481.16㎡)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1억5천 (유철1회)투자적합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 1182.4㎡, 건 2289.6㎡)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유철2회)투자적합
오피스/텔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6.6㎡, 건 24㎡) / 감정가 2천4백 / 최저가 2천4백 (유철1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42.826㎡, 건 190.68㎡) /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1억 (유철5회)투자적합
공 장
· 광주 광산구 하남동 (토지 1734㎡, 건 2635㎡) / 감정가 14억 / 최저가 8억 (유철1회)투자적합
· 광주 광산구 신쌍동 (토지 1256㎡, 건 3300.3㎡) / 감정가 1,543,868,500 / 최저가 1,080,708,000 투자적합
주/유/소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 3974㎡) / 감정가 44억 / 최저가 44억 투자적합
· 광주 북구 용봉동 (토지 787㎡) / 감정가 7억3천 / 최저가 7억3천 (유철1회)투자적합
대 지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 3974㎡) / 감정가 44억 / 최저가 44억 투자적합
· 광주 북구 용봉동 (토지 787㎡) / 감정가 7억3천 / 최저가 7억3천 (유철1회)투자적합
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쓰실분
경매기록서함 기록서함 같이해설분 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기)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행, 설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구함 남·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신축원룸매매

신축 2분 후분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 점포 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 4천 용 1억2천)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 전대상대 교통공단 5분 룸 14개(주인세대 1개) 매가 6억4천
- 전대 상대 1분 룸 12개 매가 6억 (호반APT 앞)
- 전대 정문 1분 룸 18개 (상가 2층 2칸) 월수익 700 매가 8억 4층 코너
- 전대정문 1분 룸 19개 4층 주택 1개 엘리베이터 완비 월수익 800 매가 12억

062)527-7600

상가 임대

- 2층 상가임대 25평 전대정문 2분 모아APT 앞, 사차선 대로변 내부시설 완비 즉시 입주, 관리비 없음 (보 300, 월 38만) 시설약간있음
- 커피숍 중심사 1층임대 80평 개국적점, 중심상업지역 가능길 (시설약간있음) (보 3천, 월 300만)
- 노래방 임대 상무지구 지하 80평 룸 7개 (시설3천만) (보 5천, 월 150만)
- 중화요리 임대 상무지구 1층 80평 월수익 2천만 거래처 인계함 (보 5천, 월 200만)
- 상가임대 물건다량있음

010-6832-9700

오피스텔 매매(수익상가)

- 동구 수기동(제일오피스텔)6층(48평) 천변쪽 방향 전망좋은 내부시설 올리모텔링원비 즉시입주임대가능,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3천 ▶ 1억1천만
- 서구 상무지구(수림오피스텔)6층(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천2백만) 매가 5천만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9평 내부시설 완비, 즉시입주가능 (보 500만, 월 45만, 용 2천2백만) 매가 8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2층(11평) 원룸형 온천역 2분 내부시설완비, 즉시입주가능 전세가격으로 원룸을 매입 월세로 노후 보장이 가능 (보 200만, 월 27만, 용 1천만) 매가 3천5백만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정연오피스텔)3층(30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완료, 한국은행 앞 현대 APT 맞은편 (보 1천만, 월 70만, 용 8천만) 매가 1억1천만
- 수원지구 1층(19평) 대방 5차 APT 후분 (보 3천만, 월 30만, 용 2억5천만) 매가 3억5천만
- 수원지구 3층(85평) 한솔빌딩 신한은행 뒷 모이텔가 A상가임 (보 3천만, 월 200만, 용 2억5천만) 매가 3억5천만
- 수원지구 3층(62평) 엠스타 롯데마트 옆 (보 2천만, 월 150만, 용 9천만) 매가 2억5천만
- 수원지구 2층(62평)대방오션스파 부영 APT 앞 (보 1천만, 월 70만, 용 9천만) 매가 1억7천만

신한 010-6832-9700